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3월 20일(금)  
..(음력 2월 26일)..

Пятница  
20 марта 2020г.  
№ 11(11687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3일(금) 코르사코브 제2학교에서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축제가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3면 게재. (사진: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제공)

## 단신

### 4월 22일,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투표의 날

지난 18일(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령으로 2020년 4월 22일을 헌법개정안에 대한 전국 찬반투표의 날로 결정했다. 모든 수정안을 담은 투표지에는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에 동의하는가?'란 찬반을 묻는 단일 질문만이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 국경 지역 보호 문제 등이 있고 논란이 된 사항은 2024년 대선 때 모든 출마 후보자의 기존 임기를 '제로(0)'로 계산하는 것이다. 모든 개정안을 검토한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16일에 연방 상하원이 지난 11일에 가결한 대통령 연임을 현행 중임에서 4선까지 늘리도록 하는 개헌안을 합헌으로 판정했다. 4월 22일 실시하는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수(50% 이상)에 달하면 정식으로 법안은 발효된다.

### 사할린에 투자정책부 작업 개시

사할린 주에서 17일부터 투자정책부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 부서가 업무에 착수한 투자정책부의 목표는 사할린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데 있다.

현재 사할린주 투자개발의 15개 방면에 필요한 작업을 했다. 사할린주는 현대적 항구와 발전된 활주로 망을 갖춘 대규모 물류센터가 되어야 한다. 의료 및 디지털 클러스터 전개, 동력과 공공주택사업의 현대화, 석유가스산업단지 건설, 건축 및 농업 산업 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평가에 따르면 이런 정책의 실시로 약 1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정책부 장관으로는 현재 사할린주 주지사 고문직을 맡고 있는 드미트리 리스네브스키가 부임했다.

### 드미트리 스메칼로브,

### 사할린 청년청 청장으로 부임

사할린 청년사업청의 새로운 지도자가 부임한다. 사할린 민속 예술센터 관장직을 역임한 드미트리 스메칼로브가 3월 17일부터 직무를 맡게 되었다. 스메칼로브 청장은 사할린 출신으로 대학에서 문화예술, 행정 관련 공부를 했다고 전해졌다.

### 사할린주 체육학교 수업

### 4월 1일까지 휴업

사할린주 체육부는 모든 국제스포츠 경기를 전면 금지한다.

사할린의 스포츠 선수들의 세계 스포츠 행사와 러시아 지역 내 감염병으로 차단된 지역에 경기 참가를 금한다고 밝힌 가운데 4월 1일까지 사회적 기획에 따른 강좌들도 휴강한다. 체육부는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인적 계획에 따라 집에서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모든 스포츠 단계 준비에 사할린 지역의 국립 및 지방 스포츠기관에서의 훈련과정을 전면 중지하도록 한다고 통보했다.

## 사할린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강화 시행

러시아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할린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코로나방역비상대책본부 회의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사할린에서는 17일부터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든 실내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공무원과 국가예산 분야 근로자들은 해외 출장 및 여행이 제한된다. 사할린주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기업 대표들에게도 권고했다.

"우리는 위험한 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광범위한 대응책을 실시한다. 이는 특별 해제 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타격을 주는 대규모 조치다. 우리에게 사할린 주민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때문에 사할린주에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는 전방위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비상대책본부는 사할린주 내 모든 학교들은 이번 주말부터 예정돼 있던 봄방학을 앞당겨 3월 18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방학은 3월 25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 방학을 연장할 것인지, 학교 내 수업을 시작할 것인지, 원격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차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들은 특별 공간에서 체육과 음악 수업은 취소하며 사할린국립대 경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손소독제는 쇼핑 공간, 문화시설 - 영화관, 극장, 도서관-에 비치해두도록 한다.

이 방역활동의 조치는 보건부에서 실시하는데 자가 격리의 환자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중증호흡기질환과 폐렴의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정보는 사할린주 위생 및 전염병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전달한다.

16일(월) 주정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사할린주 보건부 블라지미르 유슈크 장관에 따르면 3월 16일 현재 사할린주 주민 1300여 명이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는 없

었다고 전했다. 방역 대책으로 매 월요일 <건강한 아이 날> 과 대규모 보건 행사도 취소되었다. 또한 병원의 환자 방문도 금하며 시장 판매 분야에도 적용해 인터넷을 통한 물건과 식품 구입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피하고 응급제한구역은 피해야 한다고 유슈크 장관은 강조했다.

지역 교통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승객들에게 필수 자가 체크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19가 확산된 국가에서 입국한 승객들은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선박 '와니노-홀스크'에도 적용한다. 확진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시내 교통수단에는 정기적 위생 및 방역 작업을 하고 러시아 소비감독청은 방역행사 시행을 검사와 감독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진료 문의는 보건부 핫라인 1-300으로 전화하고 연결 후 추가로 8번을 누르면 된다.

주 농산업부는 인터넷 판매 및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목록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운신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사회 복지사들의 식품 배달 서비스가 조성된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추가 조치로 주 예산에서 2500만 루블리가 투입된다. 이 자금은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위생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사할린주에 보급될 마스크가 마침내 19일(목)에 도착해 약국을 비롯한 전 지방에도 공급된다. 1인당 구입량은 일회용 마스크 10장, 다회용 마스크 5장으로 한정한다. 바이러스 감염자에게는 치료 기간 무료로 하루에 2장 사용, 일주일에 14장을 배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역조치로 18일부터 3월 말까지 사할린한 국교육원의 수업과정과 주한한인협회 한인문화센터 소속 예술단체, 씨름 모임을 취소했다. 현재 많은 문화, 스포츠 등 행사가 취소한다. (본사 기자)

## 새고려신문

##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 한국교육원에 배우러 오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도록 하려고 고민

##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과의 인터뷰

신임 사할린한국교육원장으로 **이병일**(1968년생) 원장이 부임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이병일 원장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

- 사할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원장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장님의 고향 및 전공과 경력이 궁금합니다.

- 서울 불암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2020.3.1.자로 사할린한국교육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병일입니다. 고향은 충청남도 태안이구요.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사범대학에서 윤리-도덕을 전공하였습니다. 윤리-도덕교사로서 19년 재직하였고,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교육연구사)로 7년, 중학교 교감으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 교직 경력에 가장 큰 두 번의 변화는 첫 번째가 교사를 그만두고 장학사로서 학생들 야외 수련교육과 교육행정, 또 교감을 하던 것이었고, 다음으로 큰 변화는 바로 여기 사할린한국교육원 근무입니다.

- 한국 대학에 윤리-도덕 교사를 양성하는 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 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교사로 취직하려면 고시를 봐야 합니다.

- 사할린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요? 사할린 한국교육원 장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지요?

제가 윤리도덕 교사시절, 아이들에게 해외동포들의 삶을 가르치면서 항상 잊지 못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하던 곳이 몇 지역이 있고, 늘 마음에 궁금함이 남아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우리 역사 시기에 간도, 사할린, 연해주, 중앙아시아, 중남미로 징용 또는 이주해 가셨던 지역과 한인 동포,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젊고 어린 세대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사할린은 억압적인 징용과 힘겨운 환경과의 싸움이 지극히 심했던 곳이라, 지난해 사할린 근무 희망자 모집 공문이 왔을 때, 주저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근무를 희망하던 응모자가 4번 정도 더 계셨었습니다. 많이 근무를 자원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제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한 켠에 있었습니다.

- 원장님께서 외국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 전 외국에서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서 일한 경험은 있습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로서 근무한 곳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인데요. 학생들의 야외수련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산속과 바닷가에 여러 분원(분교처럼)이 있었는데,



작은 분원의 분원장으로서 학생들이 수련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면 직접 로프나 줄을 잡아주고, 활동과 교육을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즐거운 야외교육, 실내교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야외 수련교육을 배우러 여러 선생님이 선택되어 간 적이 있고, 뉴질랜드와 영국의 몇몇 선도적인 학교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 사할린에 오셔서 첫 인상과 이전에 예상하셨던 것과는 다른 점이 있으셨는지요?

- 2020. 2. 23 일요일, 입국하던 날 풍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은 '춥구나', '삶의 여건들이 만만치 않구나', '그 옛

날 처음 여기에 오셨던 분들은 얼마나 고통과 설움이 크셨을까'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어린 세대, 젊은 세대가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동기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3주간 느낀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인협회와 센터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사 출장소와 한국교육원이 무엇인가 동기를 북돋울 만한 지원을 하면 젊은 세대에게 동기를 북돋우는데 다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할린에 오신 지 거의 3주가 되었는데 실태 파악은 많이 하셨는지요? 적응은 잘 되어가고 있으신지요?

- 아직 짐이 도착하지 않아 구두 하나로, 김치와 생선튀김 등으로 단촐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업무를 위한 국내외적인 행정적 절차 등도 마무리되지 않아 그런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3월 13일) 처음 한국어 채택학교인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행사를 찾아보았는데 좋았어요. 다른 학교들을 아직 찾아 볼 기회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차츰 저와 아내 모두 이곳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계십니까?

- 아직 많이는 모릅니다. 사할린한인협회와 각 도시, 지역 한인협회가 있고, 노인회, 이산가족회 등 동포단체가 활동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3월 7일 여성의 날 행사 때 많이 인사를 드렸지만 아직 얼굴과 성함 등이 잘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코르사코브 한인협회의 여성의날 축하 행사에도 참여해서 인사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주 어르신들, 젊은 세대분들과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문화센터에서 사물놀이하는 젊은이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크고 벅찬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 교육원장으로서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 한인 동포나 사할린의 현지 이웃 주민들에게 한국교육원에 무엇인가 배우러 오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현지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해지도록 동기를 북돋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를 북돋우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글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어 채택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발굴하고 교장님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7면에 계속)

# 이모저모

## 사할린의 한 가정에서 열둘째 아이 탄생

사할린의 한 가정에서 열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다비드라는 이름의 이 남아는 3월 11일 분만센터에서 태어났다. 이 가족은 2018년 오데사에서 사할린으로 영구 이주했고 자녀들 중 다비드가 사할린에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사할린주 보건부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했다.

"첫째 아들은 이미 대학교 1학년생이다. 아이들은 남동생을 기다렸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에는 복도 그만큼 크다."고 다비드의 어머니 나탈리아 마르틴이 말한다.

12명의 남매는 9형제과 3자매로 자녀들의 이름은 사무일, 아벨, 발렌티나, 다니엘, 루피나, 왜니아민, 바짐, 아베니르, 아비게야, 복단, 마르크 그리고 막내 다비드이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다방면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음악과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쯤되면 집안 가장의 직업이 궁금해지는데 바로 나탈리아의 남편은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 가족 모두는 어머니와 어린 막내가 속히 집으로 돌아오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다자녀를 둔 어머니는 흔치 않다. 다섯, 여섯까지는 종종 있으나 열째 이상의 자녀를 두는 가정은 정말 드물다. 우리는 모든 산모들을 받기며 각각의 아이들에게는 개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 국립병원 분만센터의 부원장 올가 콜레소와가 말했다.

## В одной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родился двенадцатый ребенок

В одной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родился двенадцатый ребенок. Мальчик, которого нарекли Давидом, появился на свет в перинатальном центре 11 марта.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на Сахалин из Одессы в 2018 году. Давид стал первым ребенком, который родился на острове, сооб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Instagram-аккаунт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 Старший сын уже студент-первокурсник. Дети очень ждали братика, у нас все помогают друг другу. С каждым ребенком в дом приходит больше счастья, — делится мама Наталья Мартин.

Из 12 детей — девять мальчиков и три девочки: Самуил, Абель, Валентина, Даниил, Руфина, Вениамин, Вадим, Авенир, Авигея, Богдан, Марк. В семье стараются дать детям разносторонне образование. Ребята занимаются музыкой и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К этому располагает и профессия главы семьи — супруг Наталья работает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английского. Все уже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т выписки мамы с малышом.

— Такие многодетные мамы у нас бывают нечасто. Пятый, шестой раз приходят, а больше десяти — это, конечно, редко. Но мы рады всем мамам, каждому ребенку нужен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о перинатальному центру Ольга Колесова.

##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에서 이고리 사마린의 회갑 맞이 출판 기념

3월 12일 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사회단체들이 <이고리 아나톨레위치 사마린> 인물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사진작가이자 향토사학자인 이고리 사마린의 탄생 60주년에 맞추어 새로운 책의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동료, 도서관과 박물관의 직원들, 향토 애호가들과 독자들이 찾아왔다. 만남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사할린 지역만 아니라 지역 넘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할린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고리 사마린의 삶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마린은 작가로서 고고학, 건축학, 지명학, 화폐학, 전쟁사, 항해사 등 30권의 서적과 150편의 과학 논문을 출간했다. 그는 사할린 문화기금의 상과 문화

분야에서 사할린 주지사 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 이번 새로운 출간된 서적은 <사할린주의 활동가> 시리즈 15번째로서 사회적으로 주요 향토문학의 출판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덕에 나오게 되었다. 이 인물전에는 사마린의 삶과 그의 간행물, 편집자, 검토자, 해설자, 사진작가로서의 활동과 삶에 대한 문학,세부 부수 목록들을 담고 있다고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측이 전했다.

##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езентовали книгу к юбилею Игоря Самарина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указатель "Игорь Анатольевич Самарин" представи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12 марта.

Выход нового указателя приурочили к 60-летию историка-краеведа и фотографа Игоря Самарина, поздравить которого пришли друзья, коллеги, специалисты музеев и библиотек, любители краеведения и читатели.

На встреч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рассказали об Игоре Самарине, который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ка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а жизнь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авторством Игоря Самарина вышло более 30 книг и 150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по археологии, архитектуре, топонимике, нумизматике,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и истории мореплавания. Он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дважды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Новый указатель,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15-м выпуском из серии "Дея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идел свет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о изданию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ой краевед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указателе собран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биографии Игоря Самарина, его публикациях,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ачестве редактора, рецензента, комментатора, фотографа, а также литература о его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одробные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указател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8면에 계속)

### 넵흐 작가 블라지미르 산기 탄생 85주년 맞이

3월 18일에는 넵흐문자 창조자, 세계적인 인물로 꼽히는 블라지미르 산기 작가의 탄생 85주년을 맞이했다. 사할린주의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권익, 민족 정체성 유지에 나선 블라지미르 산기 탄생 85주년 관련 행사들이 지난주부터 주내 여러 구역에서 펼쳐졌다.

지난 16일-17일에는 노글리키 중앙도서관에서 블라지미르 산기 85세를 맞아 제2회 '넵흐족의 유산'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와 주 일반과학도서관, 노글리키 도서관이 주최한 이 포럼 프로그램에는 26개의 발표문이 있었다. 발표자들은 민속학자, 주 및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 직원, 행정기관 직원, 석유가스채취 회사 직원들이다. 블라지미르 산기는 포럼의 명예 귀빈으로 참석하여 넵흐어 시스템 보존의 필요성과 넵흐어 소멸의 장래 실상을 지적했다.



▲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2일에는 사할린주 미술관에서 <넵흐 날> 행사 일환으로 블라지미르 산기와 만남이 있었다. (취재: 이에식 기자)

###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 사할린 한인들과 만남

지난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주정부 행정담당)가 사할린 한인 사회계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본 회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여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점 해결, 한민족 문화 보급, 민족 정체성 유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히, 사할린에 거주하는 민족 중에서 한인 디아스포라가 유일하게 자체 TV방송, 한인 족지, 문화센터를 갖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협회가 추진한 민족문화축제들이 지방 행정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례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순 마카로브 한인회 회장은 주 한인협회, 마카로브 구역 행정부, 마카로브한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우리는 함께다> 축제를 소개하며 올해 축제에 제1부지사를 초대했다.

코르사코브 한인회 이태출(이태준) 회장은 망향의 언덕에 화장실 설치에 대해 주정부에 감사를 표명하고 사업가로서 천연비료만 쓰는 농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자신의 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물었다.

청년한인회 이 세르게이 회장은 러한 수교 30주년을 맞아 사할린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는 이 회장을 올 9월에 사할린에서 개최하는 전국 애국 포럼에 초대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인협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한인 역사캠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사할린국립대 언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 주 한인협회 부회장은 한국어 전문가 양성문제에 관련해 언급했고 한인협회 부회장으로서 한민족 문화 보급, 한민족 청년 관련 문제 담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경춘 이산가족협회 회장은 협회의 사업을 소개하고 1, 2세의 한국 방문, 영주귀국자들의 역방문, 영주귀국 사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말 방송> 김춘자 국장, 새고려신문사 배순신 사장은 한민족 매체들의 현황, 고민 거리 등을 알렸고 한민족 스포츠 발전에 나선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 주 태권도협회(회장 김춘하)의 대표들도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홈스크 한인회 김금옥 회장, 돌린스크 한인회 윤태옥 회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김홍지 고문·오진하 고문, 사할린주 한인협회 배영희 사무국장 등이 시민으로서, 한인으로서의 걱정거리를 얘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 만남에서 민족대표들과 주 정부는 앞으로 더욱 공고히 협력하기로 했다.

(배순신 기자)

### 러·한 수교 30주년 맞아

### 코르사코브 제2학교, 한민족문화 체험 행사 펼쳐

지난 13일(금) 코르사코브 제2학교에서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 <개방의 날> 행사 일환으로 한민족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어·한국어 교사 오점순 씨가 계획하고 추진했다고 전해졌다.



행사에는 학교 학생들, 졸업생, 학부모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이날 학교에 코르사코브 한인회, 아나와 한인회, 홈스크 한인회 대표를 비롯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제2학교 켈름비츠카야 릴리아 교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등이 학생들을 따뜻히 환영했다.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학생들과 한인회 소속 예술단들, <에트노스> 예술학교 무용단의 공연과 문화체험 행사가 있었다. 문화체험으로는 학생들이 김밥 만들기, 활동교실(담당: 배영희 아나와 한글학교 교장), 한글 쓰기교실(담당: 이진선 홈스크 한글학교 교장), 씨름교실(담당: 사할린주씨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 그리고 민속놀이, 한복 체험, 기념품 만들기 등의 활동교실과 사할린한인역사에 대한 인터랙티브 활동이 이뤄졌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감사장을 시상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한민족 문화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이번 행사는 코르사코브 사업가인 오정대 <스트로이마켓> 사장이 후원한 것으로 (본사 기자)

(사진: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제공)

###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 묵묵한 외로움

독도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 섬이지만 뜻밖에 가기가 쉽지 않다. 동해 바다 날씨가 변덕을 부릴 때마다 여객선이 항구에 묶이기 때문이다.



내 지갑 속에는 독도명에 주민증이 있다. 독도를 방문한 사람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기념품인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련해진다. 동해 한 가운데 철저히 혼자이던 독도가 떠오른다.

독도를 처음 보러 갈 때는 비행기를 탔다. 공군에서 수십 명을 초청해 특별히 제공한 대형 수송기는 대관령을 넘고 동해를 건너 울릉도를 지나 독도를 찾아갔다. 돌을 던지면 닿을 것 같은 거리를 두고 거대한 수송기는 독도를 중심축으로 몇 번이나 급선회했다. 동그란 창밖의 독도는 우뚝했고 주위 바다는 바닥까지 푸르렀다. 하늘 위에서 독도를 바라본 사람은 드물지만 그래도 직접 섬에 상륙하지 못한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았다.

다음에는 독도에 가려고 포항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파도가 높아 배가 뜨지 못했다. 포항 죽도시장에서 사람보다 큰 대왕문어를 구경한 걸로 위로를 삼았다.

아주 무더웠던 칠월에는 자전거로 설악산 옆 한계령을 넘은 다음 동해시에서 울릉도행 배를 탔다. 태풍너구리가 오기 직전이었었는데 다행히 자전거로 울릉도를 한 바퀴 돌고 독도행 배에 오를 수 있었다. 한 시간이 넘게 바다를 달리자 독도가 나왔

다.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도 맑아 접안장에 배를 대고 독도에 섰다.

하늘 위에서 본 독도도 아름다웠지만 바다에서 바라본 독도는 당당하면서도 애잔했다. 줄지어 서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힘찬 경례로 떠나보내는 경비대원들의 든든함과 제복으로 가릴 수 없는 그들의 풋풋함에도 마음이 뭉클했다.

선착장에서 이삼십 분 머문 뒤 독도를 떠났다. 갑판이 없는 밀폐형 고속선이어서 나는 선실의 뒤쪽 창문을 통해 멀어지는 독도를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홀로 서있던 독도가 점점 멀어지며 작아졌다. 독도가 왜 외로운 섬인지 주위를 보니 알 수 있었다.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던 독도는 진짜 독도가 아니었다. 독도가 점으로 변해 사라질 때까지 바다는 그저 넓고 푸르고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도를 다녀오는 데는 열흘쯤 걸렸다. 범선을 타고 갔는데 중간에 태풍을 피하려 작은 항구에서 며칠 동안 피항을 했다.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에 흔들리는 선실에 누워 동해바다 한 가운데에서 묵묵히 거대한 파도를 맞을 독도를 생각했다. 동해 한 가운데서 독도가 건디는 외로움의 크기란 얼마나 막막한 것인지 바닷가에서도 알 수 있었다. 어떤 외로움은 아름답다. 마치 별처럼.

광주에서 김남중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Живая классика» прозвучала в Пусане

14 марта 2020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Пусане состоялся финал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юных чтецов «Живая классика».

Праздник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слова проходит под патронаж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Участники из 80 стран мира соревнуются в декламации отрывков из любимых проза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этом году обязатель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было обращение к произведениям русских и советских авторов.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в связи с эпи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чтецы должны были записать свои видеовыступления.

Ребята читали отрывки из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их и советских авторов: А. П. Чехова, А. С. Грина, В. Катаева, В. Берестова, М. Пришвина, В. Распутина, Л. Улицкой.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национальным куратором этого престижнейше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является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russiancollegebusan](#).

Возглавил жюр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Рябков Г. Г.,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Ф в Пусане. Также оценив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ребят Полулан Е. Б., канд.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Институ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г. Пусана, и Зарецкая Ольга Викторовна,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ы, МХК Лицея № 41 г. Владивостока.

Компетентное жюри,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ив видеозаписи выступлений участников, определило побе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отправятся в лучший лагерь мира "Артек"!

Итак,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В номинации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родной"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ученица 8 класса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НАМ АЛИНА (А. П. Чехов «О любви»), номинации "дети-билингвы"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ЗАЙЦЕВА СОЕНА (А. С. Грин «Алые паруса»). Спецприз и право поехать в МДЦ «Артек»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ченику 5 класса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ОРЛОВУ ТИМУРУ.

Поздравляем победител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Новых побед вам, ребята!

Благодари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ратора конкурс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вилкову Елену Александровну, учите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12 слов, позволяющих понять культуру Кореи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значит слово «доширак»? Правда ли, что в день местного ЕГЭ закрывают аэропорты? Зачем молодые кореянки кривляются и сюсюкают? Почему корейцы ничего не скажут прямо, а плохие новости сообщают вечером? И с чего это кореец называет свою жену «нашей»?

Автор Мария Рязанов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8)

Осенью идут любоваться великолепием разноцветной листвы (для этого, кстати, тоже существует труднопереводимое слово «танпхун» 단풍 — «краски осени»), весной — роскошным цветением всего и вся: в Корее настоящий культ смены времен года, а люди здесь тонко чувствуют красоту природы.

### 9. Ёю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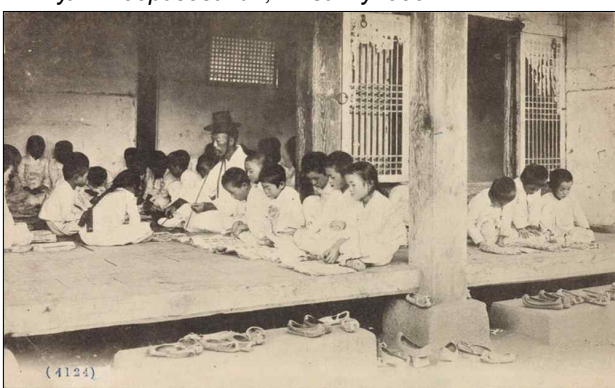
Избыток чего-либо; нечто свободное, лишне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что-то, что остается

С л о в 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контекстах и встречается во фразах «нет ёю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на что-то», «нет ёю (лишних денег), чтобы что-то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не хватает ёю (пространства), чтобы что-то вместить». Но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о оно звучит,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личностных и деловых качествах людей: ёю —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идеаль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и вообще успешного человека. Обладающий ёю человек умеет сохранять спокойствие и присутствие духа даже в критических ситуациях. Он не суетится, не отвлекается, не тратит энергию на пустяки, умеет отделять важное от второстепенного. Сознает ограниченность соб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и способен делегировать часть задач помощникам, помнит о том, что что-то может пойти не так, и обязательно учитывает это при долгосрочном планировании. Поэтому он крайне редко оказывается в ситуации жесткого цейтнота, но, даже попав в нее, сумеет сохранить хладнокровие и правильно расставить приоритеты. Он не забывает о важности отдыха,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полноценный отдых позволяет ему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Обладать ёю — значит быть собранным и степенным,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ным и расслабленным одновременно.



Син Юн Бок. Катание на лодке на чистой реке. 1805 год  
간송미술관 (Музей искусств Гансонга)

10. Кёюннёль 교육열  
Культ образования, тяга к учебе



Дети на занятиях в школе. Корея, начало XX века  
The New York Public Library

Это составное слово, где первая часть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образование», а последний слог — «жар, рвение, энтузиазм», ярко отражает традиционное для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тремление к получению образования. Почти тысячу лет (с 928 года) в Корею действовала систе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ов на чин. В ее основе лежал принцип меритократии: согласно е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олжность мог получить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теории) любой человек, проявивший упорство и имеющий способност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словия. Успешно сданные экзамены гарантировали высокий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чиновники были самым почитаемым сословием), материальн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д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ям. Подготовка к экзаменам началась уже в детстве и заключалась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освоении иероглифики и заучивании конфуцианских трактатов и комментариев к ним.

В сознании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мес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ов на чин заняли вступительные испытания в вузы.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й диплом здесь станови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ловием не только успешной карьеры, но и достойного окружения, удачного брака. Согласно соцопросам, налич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критериев выбора супруги/супруга. Кроме того, существует четкая и общеизвестная градация вузов по степени их престижности. Мечта родителей — поступление ребенка в один из нескольких столичных вузов,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вершине этой пирамиды, и этой цели подчинена жизнь семьи с самого детства ребенка.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бильно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е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расходам граждан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слуги. Уже в детсадовском возрасте ребенка ждут занятия по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и общеразвивающие кружки. Став школьником, он непременно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по школь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а в старших классах учебная гонка достигает апогея: подростки учатся с раннего утра и до поздней ночи, уделяя сну,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среднем около пяти часов — все ради подготовки к выпускному экзамену. Итогов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аналог российского ЕГЭ) — событие,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асштаба, главная тема новостных заголовков этого дня. В этот день многие компании и учреждения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властей начинают работу на час позже (чтобы дети могли прибыть на экзамен без пробок и опозданий), уменьшаются интервалы движения метро и автобусов. Могут даже на полчаса закрыть аэропорты, чтобы гул садящегося самолета не мешал аудированию выпускников.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экзамена в новостях, наряду с репортажами о героях, получивших сто баллов, ежегодно появляются сообщения о самоубийствах или попытках суицида тех, кому не удалось поступить в вуз мечты и оправдать ожидания родителей. По этой и другим причинам явление кёюннёль нередко критикуетс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а несовпадение мнений супругов по вопросу обучения ребенка порой становится причиной разводов.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насколько пронизана ощущением жест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атмосфера совреме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его без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ульт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знаний.

### 11. Пудам 부담

Моральный груз, брем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ли тягостное ощущение морального долга

Слово, которое нередко досаждают при попытке перевода, — а встречается оно меж тем очень часто, ибо немал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бщения — именно про то, как не доставить окружающим этот самый пудам. Заставить собеседника ощущать пудам — это, например, обратиться к нему с непосильной или слишком неожиданной просьбой. Поэтому корейцы, формулируя просьбу, нередко начинают чуть издалека, чтобы у собеседника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моральн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а после собственно самой просьбы, чтобы снизить возможный пудам, склонны добавлять: «Но если это трудно,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можете отказаться».



Девушка из высшего общества на носилках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лужанки. Сеул, 1904 год  
The Library of Congress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Источник: <https://arzamas.academy/mag/787-korea>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приня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17 марта,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внеочередной се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парламентарии приняли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размере 11,7 трлн вон или 9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нынешнему курсу. Правящая и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пришли к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о сохранении заложенной суммы при условии сокращения размера других бюджето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увеличении денежной помощи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и городу Тэгу более чем на 800 млн долларов.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ддержку пострадавши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снижение расходов на электричество мел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окращение расходов на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Более 1,6 млрд долларов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в помощ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мимо этого, были добавлены статьи расходо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и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палат с отрицательным давлением. Между тем, депутат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кращении размера средств, выделяемых для решения менее важны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опросов. К их числу относятся помощь пр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найме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работников, денежный возврат при покупке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ой домашней техники и другие. Объём субсидий по этому пункту был сокращён более, чем на 566 млн долларов.

##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вырос на 40,6%

По данны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ITC),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в среду, объём торговли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в 2019 году составил 47,9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40,6%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хеньян импортировал из России товары на сумму 44 млн 866 тыс. долларов. Больше всего СК ввозила нефтепродукты - 27 млн 194 тыс. долларов. Далее следуют животный и растительный жир - 4 млн долларов, крупы - 3,8 млн долларов и медикаменты - 2,5 млн доллар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в Россию превысил 3 млн долларов.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пришлась на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 1,6 млн долларов. Далее следуют продукция машиностроения и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еренесло начал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на 6 апр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во вторник решение начать учебный год в детски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чальных,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ах шестого апреля из-за опасени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вируса COVID-19. Начал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ложило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 сначала до девятого, а затем до 23-го марта, поскольку большие группы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уязвимы для инфекции. Учебный год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начнётся в апреле.

## Сеул отправил в ОАЭ тест-системы для выявления COVID-19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отправила в ОАЭ 51 тыс. наборов тест-систем для выявл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Об этом 17 марта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По его слова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17 государств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каналам сделали запрос о помощи по вопросу обеспечения тест-системами. Первая отправка данного груза осуществлена в ОАЭ.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глобальны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 сообщает источник. Отправленные тест-системы прибыли в ОАЭ 12 марта. Источник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имеется два типа тест-систем -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заболевания и забора анализов. В ОАЭ был выслан последний тип. Ранее наборы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COVID-19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в 17 стран, а системы для сбора анализов экспортированы впервые.

## Кассовые сборы фильма «Паразиты» превысили 250 млн долларов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Паразиты», удостоенный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град, в том числе премии Оскар, продолжа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 данным веб-сайта Box Office, отслеживающего кассовые сборы,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13 марта, картина собрала в мировом прокате 253,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американском рынке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52,7 млн долларов. До сих пор только три иностранных фильм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более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в США. В Японии «Паразит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7-8 марта были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по сборам. (РК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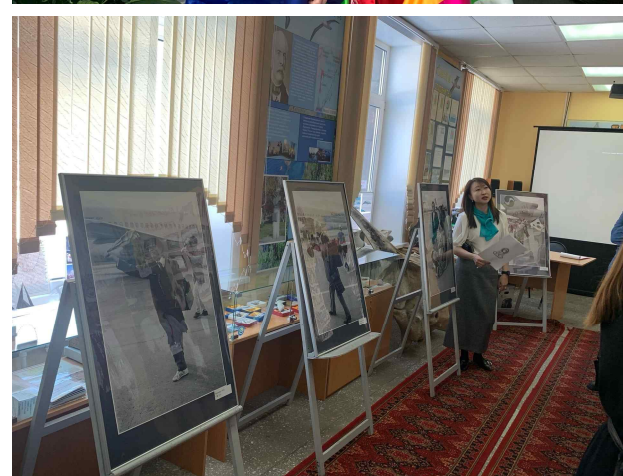
## К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 Шко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 Корсакове представил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искусство

13 марта, в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СОШ № 2 г. Корсакова (директор Л.Б.Челомбицкая) радушно принимала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етер с Востока», приуроченного к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 от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среди приглашённых гостей было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и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ен Иль. В своё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глава РООСК отметила важность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поблагодар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СОШ №2, главн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 и идейного вдохновителя фестиваля -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 Ден Сун (Алла Валерьевна).

Именн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 ярк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пулярности и актуальности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Да и кого могут оставить равнодушными ритмы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группа «самульнор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легкие, воздушные танцы (ДШИ «Этнос»,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самбля Ким Анна) или азар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СИРЫМ», президент Чун А.В.), 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кулинарным мастер-классом «КИМ-БАП» (Клуб «ХВАРАН» г.Анива) стала неотъемлемым атрибутом подобных программ. Мастер-класс «Каллиграфия» и оригами «Ханбок» приобщил ребят к тонкому искусству работы с бумагой и кистью, благодаря творческому тандему «учитель+ученик»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Холм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Ли Тин Сон и Пе Жанет). Помимо этого ребята смогли изготовить подарочные сувениры, для детей 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провели интерактив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Шко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етер с востока» объединил не только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о и



помог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наметить план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ллегами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Анжела ПЕ

## Почему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т улич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Журнал КИМ)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10)

Во-первых, и в главных, Корея - это страна жест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Речь идет не о контроле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полицейский патруль на корейской улице - редкое зрелище), а о контроле со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а. Корея в целом остается страной домохозяек.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не работают, пока у них есть дети, в том числе и дети подросткового возраста. Корейские кварталы пронизаны тесной сетью социальных связей, все знают друг друга, все знают друг о друге если не всё, то очень многое. Понятно, что первые шаги по пресловутой скользкой дорожке обычно делаются в раннем возрасте, но в Корее слишком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о странном и неподобающем поведении чада мама узнает мгновенно. И речь идет о маме, которая не задержана работой, но зато весьма озабочена продвижением своего отпрыска в конкурент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ргвыводы - в том числе и в виде отцовского ремня - последую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о-вторых, немалую роль играет и тот самый жестко конкурентный характер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стичь уважения и доходов, в Корею надо иметь диплом хорошего вуза. В Корею невозможны фигуры типа Билла Гейтса или Стива Джобса - то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ушли продвигать свои идеи и добились успеха, так и не окончив формального курс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наук.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кореец знает: его судьба, его доходы, отношение к нему окружающих, даже его шансы на удачный брак - все

это зависи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т того, как он сдаст вступительные экзамены в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 этом экзамены замечательно честны и свободны от коррупции: ни деньги родителей, ни их связи обеспечить поступление напрямую не могут. Хотя, конечно, немалую роль игр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плачивать недешевые услуги репетиторов.

В целом шанс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в престижный вуз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жизненный успех есть почти у всех, но реализовать его можно только изматыв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ой, которая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жизни почти всех корейцев с 11-12 лет. У корейских подростков просто нет времени курить по подъездам, накапливать сексуальный опыт и слушать рассказы приклатненных старших пацанов. У того, кто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такими глупостями, нет шансов на жизненный успех - и это в Корею известно всем. В школьные годы надо учиться, чтобы не стать лузером - а лузеров в Корею презирают, пожалуй, больше, чем где-либо в мире.

В-третьих, помогает свойственный корейцам пietet перед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дписаниями и инструкциями.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корни этого пиетета уходят в конфуцианскую старину. Ну и, наконец, немалую роль играет и жестк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огнестрельным оружием. Контроль этот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 те времена, когда 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всерьез боялись, что в горах появятся партизаны, и посему жестко контролировали обращение оружия. Огнестрельного оружия на руках у корейцев нет, поэтому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и в сводках происшествий оно фигурирует крайне редко.

Все это, конечно, неполиткорректно и спорно. Впрочем, каковы бы ни были социаль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и прочие причины корейской нелюбви к грабежу и разбою, факт остается фактом: улицы Сеула, равно как и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ов, безопасны в любое время дня и ночи.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силивает меры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ручение об этом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с 15 марта запрещены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закрытых площадках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Госслужащим и работникам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ограничен выезд за рубеж – в командировки и в отпуск. Такого же треб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бизнеса.

Действия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судили 16 марта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санитарно-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ой подкомиссии комиссии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КЧ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вводим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р,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 профилактике опас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Они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 особого распоряжения. Это очень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затронет все сферы жизни. Нет ничего важнее здоровья островитян, поэтому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редупредить проникнов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ых школах весенние каникулы решено сдвинуть на более ранний срок – они начались с 18 марта.

Кроме того,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отменили уроки физкультуры и музык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помещениях, а СаХГУ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ерейти на дистанционную форму обучения.

Диспенсеры с антисептиками также предложено установить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и объектах культуры – кинотеатрах, театрах, библиотеках.

– Особый режим работы вводим в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ы задействуе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сурсы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циентов на дому. Информация обо всех случаях ОРВИ и внебольничных пневмоний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в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заявил глав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 Кроме того, отменены «Дни здоровья ребенка»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а также массовы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Вводим запрет посещения пациентов в стационарах.

Особый подход применят и в сфере торговли. Предложено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ервисы доставки товаров и продуктов через Интернет.

– Важно, чтобы пересекающихся потоков людей было, как можно меньше,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ерекрестного инфицирования. В периоды вспышек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разобщение различных групп жителей всегда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фактором сдерживания, – добав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решением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публикует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еречень предприятий,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доставку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доставка продуктов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Усил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решено и на транспорте.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транс и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ганизуют обязательное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ассажир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внутренних рейсов. Это поможет выяви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14 дней посещали страны, гд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Такой же опрос организуют на пароме Ванино-Холмск.

Кроме того, во всех видах транспорта будут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ь санитарную обработку. А управлени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организует контрольные проверки качества дезинфек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вопросов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диагностике и лечению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жител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1-300. Сегодня в телефонном сервисе запущена отдельная линия,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наж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омер 8.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граничило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ахалина и Хоккайдо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 итогам совещания вице-премьера Татьяны Голиковой с главами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 так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в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всех прибывающих с японского острова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овали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на предмет заболевания проверяются пассажиры самолетов 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которые следуют на Сахалин из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роме того, введен термометрический контроль и на внутренних авиарейсах. Прибывших с симптомами болезни решено помещать на 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Данные этих людей передают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бильная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опто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хранится более 5 тысяч тонн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сперебойную торговлю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регион доставят еще более 2,7 тысячи тонн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итуация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 рынк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ую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мире, остается стабильной. Запасов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хватит на срок до полугода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хранения.

К примеру, чая достаточно на 40 дней, растительного и сливочного масла – на 50 дней, соли – на 178 дней. Сформированы запасы риса и других круп, макаронных изделий, мясной продукции, муки, сахара.

Стабильность на островном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м рынке также во многом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за счет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артофеля достаточно до следующего урожая.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запасы свеклы, моркови, капусты.

– Сегодня в торговой сети достаточно основны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 сообщ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Розанова.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ы держим ситуацию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Ведетс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ое наблюдение за товарными запасам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в оптовой торговой сети. Невзирая на обстановку, связанную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оптовики не прекращают поставки продуктов на острова. Грузы приходят в регион до двух раз в неделю.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ыстраивают эффективны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цепочки: продукция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попадает к потребителю, минуя посредников и по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откому пути до региона.

Основные поставщики продуктов с материка – это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се виды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товаров, овощи и фрукты), Алтайский край (мука, крупы,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бакалейная и мясная продукция, сыры),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колбасные изделия),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Воронежская область (мясная и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консервы, бакалея,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крупы, сахар, бакалейная продукция,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ясная, молочная, бакалейная продукция,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овощи, фрукты),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консервы), Республика Беларусь (мясная,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колбасные изделия, сливочное масло, крупы,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Также товары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вают из Белгородской, Кемеровской, Ростовской, Липецкой, Челябинской, Томской, Новосибирской областей,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и ряда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ведут планомерную работу,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необоснованного роста цен. По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ли и сферы услуг субъекты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олучают субсидии на возмещение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С помощью эт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опт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омпенсируют до 5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по перевозке товаров наземным и вод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завозят на острова товар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прямым договорам поставок, заключенным с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или их официальными дистрибьюторами. Тем самым исключается участие посредн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ассортимент и цены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ботают 106 таких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Наценка на продукты здесь не превышает 15 процентов без учет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что в два раза ниже средней по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расширится ассортимент – с 24 до 40 наименований основн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ходящих в потребительскую корзину. Это бобовые, мука пшеничная, рис и крупы, хлеб, макароны, картофель, капуста, свежие и соленые томаты и огурцы, фрукты, сахар, соль,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мясо, рыба,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яйца, маргарин, чай, специ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о работа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17 марта новое ведомство приступило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которое перед ним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Ц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 активное привлечение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егион.

Сегодня разработаны 15 направлени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а должны стать крупным логис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портами и развитой сетью аэродромов.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ернуть медицинский и цифровой кластеры,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энергетику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создать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арки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ов. Реализация этих инициатив, по оценкам,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около 11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задачи министерства также войдет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Южная», «Курилы» и 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Ведомство сосредоточит усилия на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в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ивлечении в область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и зарубежного капитала, увеличении экспорта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ост-

ровных компаний.

Возглавит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Дмитрий Лисневский,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 должность советника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нее он работал директор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проектов развития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До этого – директором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в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Алабуга» в Республике Татарстан. Трудился директором по инвестициям в NCH Capital (Москва)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менеджером в SUN Group (Москва).

– Наш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развивать на островах логистику,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туризм, IT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В каждое из этих направлений войдут,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якорные» инвесторы, вокруг которых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целые отрасли. Важно создать такие услов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привлечь ключевых инвесторов. Вокруг них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арки. Эту задачу мы планируем решать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заявил Дмитрий Лисневский.

Отметим, профи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вестиций получил в МГУ им. М.В.Ломоносова, является кандида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 Более 200 участников объединил областной женский форум на Сахалине

В Поронайске собрались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етераны,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школьники, молодежь почти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На форуме,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ло рай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обсудил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це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и выбрали «Островитянку».

Женский форум состоялся в Поронайске уже в девятый раз, все эти годы его организуют силами порона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иц. Уже дважды они выигрывали гра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оведение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Теперь активистки из Поронайска готовят заявку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й грант.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будем отмечать юбилей – форум пройдет в десятый раз. Мы начинали с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ровня, потом решили пригласить женщин из соседних районов. А в этом году в Поронайск приехали общественницы из всех уголко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 от Охи до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рона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и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иктория Кривошеева.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областного женского форума разделилась на дискуссионные площадки: «Детям войны: забота, внимание и поддержка» и «Дети Победы – живая память поколений».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в 2019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запустили 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для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Мы внедрили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которая дает скидки в торговых сетях. Учас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спортивные и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напомнила министр.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же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вели ежеквартальную выплату для неработающих пенсионеров, чей северный стаж составляет от 35 до 40 лет. Появилась компенсация за твердое топливо для люд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домах без центрального отопления. Инвалиды 1 и 2 групп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Успешным опытом работы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пенсионерами, ветеранами поделились на второй площадке. Идейный вдохно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серебряного» волонтерства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рассказал, что сегодня это движ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илось на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 Когда мы начинали, то и подумать не могли, что движение наберет такую серьезную силу. Люди хотят объединяться, быть полезными и активными. Активист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едут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помогают в сферах ЖК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 поделился «серебряный волонтер».

Форум – это не только дискуссионные площадки, но и твор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Конкурс «Островитянка» в этом году посвятили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Одинадцать участниц приехал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вельска,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Троицкого, Макарова, Поронайска, Смирных, Тымовского.

Конкурсанткам предстояло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их родных и землячках, кому довелось испытать тягот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й форме «островитянки» рассказали о судьбах женщин – тружениц тыла, узниц концлагерей, блокадниц, вдов и «детей войны».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стала учитель математики макаровской школы №2 Вера Жмурко. Ей достался главный приз – поездка в Москв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 지역 소득 및 인구

주민의 소득액과 소비는 주민의 생활 수준을 잘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예비 평가에 따르면 2019년 사할린주 주민의 소득액은 334,7억 루블리에 달했고

실질 소득액은(물가상승을 고려함)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2019년 주민의 1인당 소득액은 월평균 56,972루블리로 2018년에 비해 5.9% 증가했다. 극동연방지구에서는 사할린 주(州)는 1인당 소득액에서 3위를 차지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추코트카 자치구와 다음으로 마가단 주로 기록됐다.

사할린주 주민들의 소득액은 다양한 방면으로 소비를 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생활 소비 지출이고(물품 구매 및 서비스 비용 - 76.8%)과 공공 요금 및 납부금(14.3%)이었다.

2019년 소비 지출액은 257,2억 루블리에 달해 2018년에 비해 1.4%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은 물품 구매와 공공서비스 요금으로 약 43,775루블리를 소비했고 물품 구매로는 월평균 32,360루블리였으며 공공 서비스 비용은 9,989루블리(2018년 대비 101.4%), 신용카드 결제 해외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지출로는 1,426루블리였다.

필수 공공요금과 납입금(세금, 보험금, 대출 이자)으로 480억 루블리를 지출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월평균 다양한 지출과 할부금으로 8,166루블리를 지출했고 2019년에는 은행에 저축하는 주민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사업으로 이득의 증가와 은행 대출도 증가했다. 2019년 4/4분기 주민 1인당 월평균 최저 생활비는 14,898루블리로 2018년보다 5.9% 증가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을 위한 최저 생활비는 15,854루블리, 연금 수급자에게는 11,921루블리, 자녀들 16,256루블리에 해당했다. 주 주민의 1인당 소득액은 2019년 4/4분기에 최저 생활비의 4.5배 증가했다. 2018년 예비자료에 따르면 사할린주의 빈곤율은 8.5%로 극동 연방지구 중에서는 가장 낮

았고 2018년 러시아에서는 12.6%였다.

2020년1월 연금은 1인당 월평균 19,609루블리로 책정, 2019년에는 18,655.3루블리로 이보다 5.1%증가했다.

2019년 근로 임금 규정은 월평균 86564루블리로 2018년에 비해 11.9% 상승, 실질적 월평균 근로 임금은 7.9% 상승하고 러시아 월평균 근로 임금은 2.9% 상승했다.

2019년 중산층 월평균 임금은 62,209루블리(러시아 중산층 평균 임금 90,518루블리), 평균 임금의 68.7%(2017년 평균 65.5%)로 2년 동안 27.5%인 13,417루블리가 증가했다.

사할린주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부류는 21%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주로 석유가스 회사에 종사자, 회계업무 및 보험 분야 직종 근로자들로 월평균 근로 임금의 2.6배를 받으며 과학기술 직종은 1.5배, 회계 및 보험기관은 2.4배, 수산업 종사자는 21% 더 높다.

교통 및 경비 직원들은 월평균 근로 임금보다 6%가 낮다.

보건 분야의 근로자들은 주 월평균 근로 임금의 98%를 받고 문화 및 스포츠 분야는 89%, 교육 분야 85%, 농업 67%, 생수산업 근로자는 60%, 부동산 거래 기관은 57%에 해당했다.

도소매업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 임금은 현저히 낮으며 차량 수리업종은 44,906루블리, 숙박 및 요식업은 45,111루블리로 지역 월평균 근로 임금의 52%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사할린 지역은 사회 및 과학 분야 기관의 월평균 근로 임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교육기관의 교사 월평균 근로 임금은 지역 월평균 임금의 2.5배, 보건 및 의료 전문직은 2.9배, 사회복지사 2.7배, 연구직 2.6배, 문화직 2.2배, 의사 2.2배, 간호사직 2.1배, 유치원 교사 1.9배, 일반 교육 1.7배, 사교육 2배로 증가했다. 이리하여 사할린주의 월평균 근로 임금 수준이 인상되었다.

(사할린주통계국 자료에서)

### [우리말로 깨닫다]

### 니은 이야기

니은으로 시작하는 우리 말 단어 중에는 사람과 관련된 말이 많이 보입니다. '나와 너와 누'가 그렇습니다. 누는 누구, 누가라고 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르는 제 3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 모두 니은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 너, 누가 모음만 다른 음이라는 점에서 사람이란 게 원래는 같은 거였겠구나,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너, 누는 닮아있고, 조화를 이루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 조현운(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니은이 좀 더 모습을 바꾸면 남, 님, 놈이 됩니다. 모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느낌은 좀 다릅니다. 역시 모음의 차이가 보여주는 세상이지요.

자음은 아에 단어를 다르게 만들지만 모음은 느낌만 살짝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은 좋고 놈은 별로고, 남에는 감정이 중립적입니다. 가족을 나타내는 말에는 누이, 누나가 있습니다. 순우리말 중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엄마, 아빠 등)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니은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감정에 가까운 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소리에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에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우선 노래나 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물론 수를 세어본 것은 아니어서 제 느낌이 그렇다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온도로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니은 하면 노란 빛이 생각이 납니다. 노란 색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 색의 느낌은 뜨거운 것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더 있습니다. 빨간 색은 뜨겁고, 까만색은 다 타버린 느낌이지요. 노릇노릇한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노란 병아리의 느낌은 어떤가요?

해를 나타내는 우리말 중에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날'입니다. 날은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날이 밝고, 날이 새는 것이죠. 낮이라는 단어도 태양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나조(저녁)'라는 단어도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여름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너름'입니다. 현재 우리말에서 니은은 이중모음과 같이 안 씁니다. 발음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중모음 앞에 니은 발음을 쓰니까 모두에게 어려운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나리꽃이나 나비의 느낌이 어쩐지 노란 색과 닮아 있습니다. 노란 나리꽃이 개나리가 되고, 노란 나비가 밝게 이 꽃 저 꽃을 찾습니다. 나라라는 단어도 니은으로 시작하네요. 노란 색은 어원적으로 보면 땅이나 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땅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누리, 나라'가 니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흙색이 노란색이라는 생각은 한자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황토(黃土)는 흙을 의미하지만 색은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편 니은은 받침에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니은은 울림소리여서 웬지 여유가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받침에 니은이 들어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상을 보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세요. 받침에 니은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식구도 모두 이름에 니은 받침이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제 이름에도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니은은 이렇게 우리말에서 따뜻하면서도 오래 계속되는 느낌을 보여주는 소리인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나타내는 말에 니은이 많이 쓰였다는 것은 혹시 사람도 이렇게 따뜻하게 오래 지속되어야 함을 은연중에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 했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한국교육원에 배우러 오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도록 하려고 고민

###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과의 인터뷰

(2편의 계속)

- 가족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사할린에 아내분하고 같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 가족은 딸, 아들이 있고 아내는 동반하여 같이 와서 살고 계시구요.

딸은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프리랜서로서 연극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고 있으며 11월에 전역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큰형님 내외분이 모시고 사십니다. 늘 큰형님 내외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 원장님께서 좌우명 또는 좋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까?

- 저는 '역사는 창조하는 자의 것이다.'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연결해서 요즘은 '인생은 모험의 누적으로 차근차근 창조되는 영화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교육의 시작은 재미라고 생각해서, '재미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재미가 있으면 의미도 배움도

따라온다.'라는 책의 구절을 좋아합니다.

- 좋아하시는 계절은요?

- 전 모든 계절이 다 좋긴 하지만, 가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계절이 다 좋은 점이 있고 사계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계절이 오고 갈 때의 느낌의 다양한 변화도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자유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취미는 무엇인지요?

- 사할린에서 좋아하던 취미를 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저는 운동으로는 축구나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문화예술적인 것은, 여러나라 민속춤을 좋아하고 즐겨 했습니다. 축구를 같이 하실 분이냐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춤(포크댄스)을 함께 추거나 가르쳐주실 분 혹은 모임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긴 역사의 시간 동안, 동포들께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고통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굳건히 자리잡으시고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시는 사할린 한인 동포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국은 사할린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30여년 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여기에 온 이상, 이제 사할린이 고향인 많은 한인 세대분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말, 우리문화, 우리의 뿌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되살려내며, 삶에 녹여내며, 현지의 러시아인을 비롯해 다른 민족의 동료들과 풍성하게 교류하면서 살아가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 힘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할린에서 기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사할린 여성들에게 폭행 및 강도에 대항하는 법을 가르친다

사할린에 처음으로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가 개설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좌에서는 사할린의 여성들이 총 18시간의 훈련을 익히며 예기치 않은 상황 대처법, 여러 가해자들을 저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방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알려준다. 이 강좌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3명의 젊은 청년들이 개설하게 되었다. 복단 예고로브 강사는 격투기 스포츠 종목 사범으로서 삼보, 격투기, 공수도, 태권도 종목에서 15년간 활약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자기방어가 필요할 때 실제 상황을 재현하여 맞닥뜨린 갈등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피하는 법을 가르친다.

강좌의 참가 대상은 18세 이상의 여성이며 여기에 스포츠적 단련을 습득하고 여러 상황에서 자신감을 얻기 위한 여성들이 찾아왔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 한 강좌에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매 수업마다 여성들은 학습된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훈련을 반복 연습하며 새로운 기법도 배우고 있다. 주최 측은 12강좌 종료 후 새로운 수강생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 Сахалинских женщин учат отбиваться от насильников и граби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открыли курсы по самообороне для женщин.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сего за 18 часов тренировок островитянок научат, как вести себя в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и дать отпор любому обидчику, а также познакомят с юрид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при самозащите.

Курсы организовали три молодых человека — просто поняли, что прекрасные дамы должны уметь постоять за себя.

Тренер Богдан Егоров — мастер спорта по рукопашному бою, более 15 лет занимающийся тхэквондо, карате, рукопашным боем и боевым самбо. Учит девушек обходить конфликты стороной, приводит примеры реальных ситуаций, когда самозащита необходима.

Участницы курса — девушки старше 18 лет. Пришли сюда и для обрет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навыков,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уверенно в любой ситуации.

Уроки проходят по полтора часа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С каждым занятием девушки повторяют уже отработанные навыки, чтобы развить мышечную память, а также изучают новые приемы. По прошествии 12 занят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анируют объявить о новом наборе.

## 그룹 '바리안트'가 사할린에서 봄 프로그램 <예감...>을 발표

3월20일 18시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강당에서 그룹 '바리안트'가 봄철 프로그램 <예감...>을 개최한다.

연회에 알렉세이 이와첸코, 게오르기 바실리예와, 미하일 세르바코와, 웨라 마트웨예와, 세르게이 니키티, 윤 모리츠, 유리 비즈보르 등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 행사는 <창작가요의 해안>이라는 도서관 협력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룹 '바리안트'는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아포스트로브(섬들의 창작가요) 시 창작가요 축제 조직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정규 참가 그룹이다. 2019년에 예술단은 처음 극동지역 '졸로토포이 세투안' 축제에 참가해 대상을 차지했다고 주 일반과학도서관 측이 전했다.

## 그룹 "Варианты" представит сахалинцам весеннюю программу "Предчувствие..."

Весеннюю твор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Предчувствие..." группа "Варианты" представит 20 марта в 18:00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На вечере прозвучат песни Алексея Иващенко и Георгия Васильева, Михаила Щербакова, Веры Матвеевой, Сергея Никитина и Юнны Мориц, Юрия Визбора 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партнерского проекта библиотеки "Берега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Группа существует более 20 лет, является постоянным участником и входит оргкомитет город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АПОст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9 году коллектив впервы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стивале "Золотой Сетуан" и стал его лауреа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http://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  |  |   |   |   |  |
|--|--|---|---|---|--|
| <p>Издатель:<br/>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br/>«Сэ корё синмун»<br/>(«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br/>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br/>сая장(주필) 배 워트리아</p> |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r/>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br/>«Редакция газеты<br/>«Сэ корё синмун»,<br/>Правительство<br/>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br/>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br/>Телефон/факс: 43-59-80,<br/>43-72-94, 43-67-85<br/>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br/><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br/>«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br/>типография»,<br/>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br/>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br/>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br/>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br/>1949года.<br/>Выходит по<br/>пятницам<br/>50 раз в год.<br/>Индекс ПР575<br/>Тираж 13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br/>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br/>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br/>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br/>области.<br/>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br/>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